오리고 물들여 피워낸 부처님꽃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

서울 불일미술관(법련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이송자 作, 42수관음상과 목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는 가을꽃의 아쉬움을 달래줄 지화전이 열린다. 40년 가까이 지화를 연구하고 만들어온 이송자 작가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법련사)에서 '이송자의 한지 지화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연꽃, 목단, 국화, 동백 등을 소재로 한 30여 점의 지화 작품을 선보인다. 순지에 치자, 자초, 장록, 홍화, 쪽 등 자연염으로 물들이고 꽃대와 잎대를 작업한 꽃들이다. 계절이 아닌 인간 이송자가 피워낸 꽃들이다.

사찰꽃이라고도 불리는 지화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든 꽃이다. 꽃이 귀했던

연꽃, 국화, 동백 등 30여 점
순지에 치자, 자초 등 자연염
"공양 위한 지화 조성은 수행"

시대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꽃으로 우리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이다. '화만'이라 하여 불전을 꾸미고 불탑를 공양하기 위해 불전의 난간 등에 조화를 만들어 늘어뜨리고, 꽃을 병에 꽂아 불전을 아름답게 장식해 왔다.

염색한 한지로 피워내는 지화는 모든 장엄에 필요한 꽃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화 자체가 하나의 장엄물이 된지 오래며, 부처님의 장엄물이자 공양물인 꽃을 만드는 일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다. 육법공양 중 하나인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는 뜻에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과 찬탄을 상징한다. 신라와 고려시대 불심이 깊은 대중은 집에 불단을 세우고 작은 병에 지화를 꽂아 두었다.

우리나라 불교지화는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전의 헌공화로 시작됐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유물은 전해진 것이 없으나, 고려시대에 지화를 만드는 승려화장이 있었던 사실과 〈관무량수경〉 내용으로 그린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에 있는 꽃을 재현해 본 결과 지화의 기법으로 만든 꽃을 사용한 도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 외 수월관음도, 수덕사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은 법당 불교지화 장엄 등의 귀중한 사료를 통해 우리 불교전통지화의 양식임을 알 수 있다.

"한참 오래전, 절의 큰일이 있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종이를 오리고 물들이고 그저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꽃을 만들어 내는 꽃일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들었던 그 꽃일의 시작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이제까지 곁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 작가는 1980년 안덕암 스님의 지화를 이어받아 서울 조계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 행사에서 참여해 지화 보급과 전승 그리고 전수의 남다른 불사를 이어왔다. 한지 천염 염색을 기본으로 전통지화를 연구해온 이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연등, 지화 전수교육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125호 삼화사 국행수륙재 지화전수교육자이다. 1980년에 지화의 제작기법과 염색사사로 입문해 1991년에는 안성 봉덕사 경은 스님의 기법과 염색을 사사했다. 2001년 조계사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상 전시 연밭 장엄, 2010년 LA 라크마 주립 박물관 영산재 지화 장엄, 2013~2014 LA한인축제 지화 시연, 201년 영천 은해사 조실 스님 다비식 연화대와 영결식장 장엄 등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매년 연등회 문화마당에 참여하여 지화 시연과 체험으로 지화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제주 어린이 음성공양 "제주가 좋아 마씸"

제주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지난해 9월 창단된 제주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11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정원, 마니주중창단 등 특별출연
찬불가 가곡 민요 등 제주어로 공연

제주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의 보리수어린이합창단(지도법사 성원)이 11월 2일 오후 4시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보리수 2563 함께하는 합창제 '제주가 좋아 마씸'이라는 제목의 이번 공연은 제주의 지역적 정서를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지역가수 양정원, 마니주 중창단 등이 함께 제주어로 음성공양을 펼친다.

△1부 '맑은 모심 곱닥한 세상(맑은 마음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마음', '마음 꽃 웃음 꽃, '관세음보살님', '웃으면서 살아갈래요'을 부르고, 초대가수 양정원이 자작곡 '비야 비야 오지마라', '삼촌'을 부른다.

△2부 '제주가 좋아 마씸(제주가 정말 좋아요)'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좋아 마시', '올레 걷기,' '이추룩 살램마씸', '섬집 물애기(섬집아기)'를 부르고, 이어 마니주 중창단이 특별출연해 '내마음의 부처', '청산은 나를 보고', '제주의 푸른 밤'을 부른다.

△3부 '지꺼진 제주 행복한 어린이(즐거운 제주 행복한 어린이)'에서는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미련한 당나귀', '아이들은', '바람의 빛깔'을 선보인다.

△4부 '고치 모다 들엉(함께 우리 다 함께)'은 공연에 참여한 모든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로 '고향의 봄', '느영 나영'에 이어 '제주도의 노래'를 다함께 부른다.

지도법사 성원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첫 연주회에 참석하시어 많은 기쁨을 나누시기 바란다"며 "어린이 불자들의 합창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활짝 열어 나아갈 첫 번째 공연에 대중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어린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창단된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지난해 12월 송년공연을 통해 처음 대중과 만났으며, 올해 2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에 참가했다. 3월에는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길 위의 나라' 다큐 음악극에 참가해 제주도민들과 함께했다. 10월에는 한중교류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중어린이 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주제주 중국총영사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소속의 마니주 중창단은 제주불교여성합창단에서 활동했던 단원들이 약천사를 창건한 혜인대종사 입적 후 추모의 노래를 부르며 결성한 중창단이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찬불가열창대회에 출연해 특별상(원력상)을 수상했다. (064)746-0108.

박재완 기자

특별전

동아시아 고판화 '한눈에'

청주고인쇄전시관 12월 22일까지
원주 고판화博 내년 1월 20일까지

아시아 고판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전이 한국의 인쇄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원주와 청주에서 동시에 열린다.

국내 유일의 고판화 전문 박물관인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인쇄문화의 꽃인 동아시아 고판화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12월 22일까지 청주 고인쇄전시관에서 '고판화박물관 명품 특별전'을 개최하고, 2020년 1월 20일까지는 원주 고판화박물관에서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고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이번 특별전 중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천진대학에서 열린 제3회 중국 목판 년화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 받아 한국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년화 명품을 중국, 러시아, 일본, 체코, 폴란드, 프랑스 등 세계적인 중국 년화 소장처 학자들에게 알렸다. 그로 인해 한국 고판화박물관이 러시아 에미리타쥬 박물관등 세계적인 고판화관련 소장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재완 기자

